

■ 그림 여행



후각의 우화

(Allegory of Smell c. 1617 - 1618)

페테르 파울 루벤스와 대안 브뤼헬  
(Peter Paul Rubens 1577 - 1640 and  
Jan Bruegel the Elder 1568 - 1625)

(목판에 유채 65 cm x 111 cm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이 그림을 처음 본 순간 놀라서 숨도 쉬지 못했다. 설명이 필요 없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정교함'이 무엇인지를 직관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림의 사이즈가 클 필요도 없었다. 품에 안으면 들어 올만한 아담한 크기의 화폭 속에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과 함께 세계 3대 미술관으로 손꼽힌다. 인류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귀한 작품들이 끝없이 전시되어 있어 장대한 미술관 안을 걷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예술의 바다 속으로 잠겨 드는 느낌이 든다. 꿈꾸는 듯

이 전시실을 따라 걸다가 어느 외진 전시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진한 군청색 벽에 걸린 이 놀라운 그림을 만나게 되었다.

벨기에 화가 대안 브뤼헬이 동시대 화가이자 막역한 친구였던 페테르 파울 루벤스와 합작해 그린 그림이다 (루벤스는 인물, 브뤼헬은 풍경과 정물을 그렸다). '오감각'이라는 시리즈 다섯 점 중 하나로 '꽃 브뤼헬'로 알려질 만큼 꽃을 즐겨 그렸던 브뤼헬이 후각을 꽃의 정원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정원 중앙에는 비너스가 비스듬히 앉아 있고 그 앞에 큐피드가 꽃다발을 바치고 있다. 눈 닿는 곳 저 너머까지 푸른 나무들이 즐지어 선 정원에는 백합, 장미, 접시꽃, 튜립 등 온갖 꽃들이 만개해 있다. 꽃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어찌나 정교하고 생생하게 그려졌는지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들여다 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얼굴이 그림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꽃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궁정 화가였던 대안 브뤼헬은 이 그림을 당시 네덜란드 남부를 통치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공알베르트와 대공비 이사벨라에게 바쳤다. 이사벨라 대공비는 꽃을 좋아해 자신의 정원에 수많은 종류의 꽃을 심게 했다고 한다. 궁정 화가와 왕비의 꽃 사랑이 탄생케 한 그림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전시실에 걸려 있던 '청각'과 '시각', '미각', '촉각'들도 훌륭한 그림들이었지만 평소 후각에 가장 예민한 터이라 꽃이 만개한 이 그림이 가장 좋았다. 완벽한 가상 현실의 '꽃 세상' 같았던 이 작은 그림 앞에서 넋을 잃고 있던 그 날의 기억은 매번 꽃 내음과 함께 떠오른다.

《김동백》

■ 알고계셨나요?

오케스트라 협연 중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면?



빈 필하모닉은 해외 연주 여행을 할 때 제1 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파트의 보면대에 파트당 하나씩 여분의 악기를 걸어 놓는다. 악장과 수석 주자 악기의 줄이 갑자기 끊어질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빈 필하모닉 단원들은 대부분이 빈 국립오페라 소속 오케스트라를 겸하고 있어 극장 소유의 악기 한 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때 강한 터치로 피아노 줄이 끊어지면 연주를 중단하고 조율사를 불러 현을 갈아끼운다. 하지만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때 협연자의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면 즉시 악장이 자신의 바이올린을 협연자에게 넘겨준다. 악장의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면 악장은 바로 뒷사람에게서 바이올린을 넘겨 받고 그 뒷사람은 다시 뒤에 앉아 있는 단원에게서 악기를 넘겨 받아 계속 연주한다.

줄이 끊어진 협연자나 악장의 바이올린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뒤로 전달해 맨 뒤에 앉아 있는 단원이 백스테이지로 가서 줄을 교환해 온다. 평단원의 경우는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무대 뒤로 슬그머니 빠져 나가 줄을 갈아 끼운 다음 다시 연주에 합류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현악기 주자들은 연주복 주머니에 한 벌의 줄을 여분으로 갖고 있다.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www.myeevergreenschool.com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714.670.9687